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간의 관계

김은희*

¹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EUN-HEE KIM¹*

¹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를 조사하고, 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5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과 2학년 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3.20 ± 0.53 점, 사회성 2.91 ± 0.25 점,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3.33 ± 0.33 점이었다.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F=6.37, p=0.002$)와 가족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F=4.60, p=0.033$), 사회성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은 종교($F=6.61, p=0.011$)와 전공만족도($F=4.66, p=0.010$)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학업스트레스와 자기주도적 학습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16, p=0.024$), 사회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17, p=0.015$).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위해 초기부터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사회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208 students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a nursing program. This study was performed from December 5 to December 10, 2015.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8.0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ean score of academic stress was 3.20 ± 0.53 , that of sociality was 2.91 ± 0.25 , and that of self-directed learning was 3.33 ± 0.33 .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elf-directed learning ($r=-0.16, p=0.024$)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r=0.17, p=0.015$). Higher academic stress correlated with lower self-directed learning, while higher sociality correlated with higher self-directed learn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can influence the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to reduce academic stress and to help improve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Academic stress, Nursing student, Sociality, Self-directed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Kim(Catholic Univ. of Daegu)

Tel: +82-53-650-4753 email: ag0115@cu.ac.kr

Received March 14, 2016

Revised (1st March 28, 2016, 2nd March 31, 2016, 3rd April 11,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하며, 전문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예비사회인 시기로 중요하다[1].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에 노출되어[2], 대인관계, 성적관리, 취업준비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간호대학생은 최근 인구의 노령화, 중증환자의 증가와 같은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문성이 높은 임상간호수행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며[4], 전공과목에 대한 많은 양의 학습과 임상실습으로 타 전공의 대학생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간호대학생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간호하는 학문을 접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임상실습,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6].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과제, 시험, 개인시간 부족 등의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 학업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할 때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불안과 같은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7], 간호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간호교육의 목적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이 통합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질적인 간호제공능력을 갖춘 전문직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8], 효율적인 간호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간호교육의 목적을 인지하고, 당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9]. 사회성은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이 개인에게 내재화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교육이라는 전문직 사회화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10],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 자기존중의 정신을 형성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성 발달 도모는 간호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다[11].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2].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속도를 조절하며, 본인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므로[13], 이론 및 실습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와 전문직 태도를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14].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신입생[7]과 3년제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2학년[14]과 3학년[3]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업스트레스가 조절되지 못하면 학습과 간호수행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측정한 연구[10, 11]에서 간호학생의 사회성이 높을 때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아져 간호학생의 사회성 함양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4, 14],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신입생 시기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이후 대학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15], 4년제 학부에서 2학년 시기는 전공과목 이론 및 교내실습수업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의 기본역량을 쌓게 되므로[6]. 임상실습을 하기 전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사회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은 간호교육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연구를 볼 때 입학 후 임상실습 전 시기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살펴 본 연구는 소수이며, 사회성, 자기주도적 학습 연구는 대부분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4, 14],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께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하기 전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를 조사하고,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사하고 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한 일 대학교의 간호학과 1,2학년의 임상실습을 하기 전 학생으로, 2015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8명의 간호학생이다. 연구 표본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0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 결과로 134명이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자 208명은 연구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스트레스

Park과 Park[16]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학업스트레스 원천으로 부모, 교사, 자기로 구성하였으나, 자기 자신이 학업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6], 본 연구에서는 자기를 학업원천으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성적, 수업, 공부의 각 5문항의 하위영역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확실히 아니다” 1점, 에서 “확실히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과 Park[16]의 연구에서 도구 개발 다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0.83이었다.

2.3.2 사회성

Kim[17]이 개발한 사회성 검사를 Cho[1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자율성, 근면성, 사교성, 안정성, 책임성, 지도성의 각 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에서 도구 개발 다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 Cho[18]의 연구에서는 0.89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0.81이었다.

2.3.3 자기주도적 학습

Guglielmimo[19]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 도구를 West와 Bentley[20]가 32개 항목으로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Yoo[21]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2개 문항으로 학습애착 8문항, 자기확신 8문항, 도전 개방성 8문항, 학습호기심 4문항, 자기이해 2문항, 책임수용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West와 Bentley[20]의 연구에서 도구 개발 다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3$, Yoo[21]의 본 연구에서는 0.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7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D시의 1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15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2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연구기간 동안 수업 후에 대상자에게 비밀보장이 되고 설문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설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12월 10일까지 회수된 216부 중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회수율은 96.2% 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시행하였다.

(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8세였으며, 여학생이 90.4%이었다. 종교가 없는 군이 67.3%였으며,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하는 경우가 37.5%이었다. 교우관계는 좋은 편이 63.9%이었으며, 가족관계는 좋은 편이 75.0%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M±SD	19.84
Grade	Frist	95(45.7)
	Second	113(54.3)
Gender	Male	20(9.6)
	Female	188(90.4)
Religion	No	140(67.3)
	Yes	68(32.7)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78(37.5)
	Moderate	114(54.8)
	Dissatisfaction	16(7.7)
Peer relationship	Good	133(63.9)
	Moderate	75(36.1)
Family relationship	Good	156(75.0)
	Moderate	52(25.0)

3.2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3.20±0.53점이었으며, 하위척도는 성적이 3.51±0.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부 3.40±0.71점, 수업 2.70±0.71점 순이었다. 사회성은 평균 2.91±0.25점이었으며, 하위척도는 책임성이 3.67±0.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정성 3.47±0.48점, 사교성 3.44±0.73점, 자율성 3.40±0.58점, 근면성 3.23±0.72점, 지도성 2.97±0.70점 순이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평균 3.33±0.33점이었으며, 하위척도는 책임수용 3.45±0.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확신 3.41±3.89점, 자기이해 3.31±0.71점, 학습애착 3.30±0.60점, 학습호기심 3.22±0.63점, 도전에 대한 개방성 2.30±0.29점순이었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6.37, p=0.002),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가 '만족함'군이 '보통'과 '만족하지 않음'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60, p=0.033), 가족관계가 '좋은 편임'이 '보통'일 때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대상자의 종교에 대해 통계

Table 2. Degree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N=208)

Variables	Categories	M±SD	Minimum	Maximum
Academic Stress	Total	3.20±0.53	1.40	4.47
	School record	3.51±0.76	1.00	5.00
	Classes	2.70±0.71	1.20	4.60
	Study	3.40±0.71	1.20	5.00
Sociality	Total	2.91±0.25	2.17	3.88
	Autonomy	3.40±0.58	1.25	5.00
	Industry	3.23±0.72	1.75	4.75
	Sociability	3.44±0.73	1.00	5.00
	Stability	3.47±0.48	2.00	4.75
	Accountability	3.67±0.53	2.00	5.00
	Leadership	2.97±0.70	1.50	4.75
Self-Directed Learning	Total	3.33±0.33	2.28	4.28
	Love of learning	3.30±0.60	1.50	4.88
	Open to challenge	2.30±0.29	1.50	3.00
	Self-confidence	3.41±0.49	2.25	4.88
	Curiosity about learning	3.22±0.63	1.75	5.00
	Self-understanding	3.31±0.71	1.00	5.00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earning	3.45±0.74	1.00	5.00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Stress		Sociality		Self-Directed Learning	
		M±SD	F/t(p)	M±SD	F/t(p)	M±SD	F/t(p)
Grade	Frist	3.20±0.55	0.77(0.381)	2.88±0.24	0.45(0.504)	3.30±0.31	0.80(0.373)
	Second	3.20±0.52		2.93±0.26		3.36±0.35	
Gender	Male	3.28±0.41	1.41(0.236)	3.05±0.25	0.25(0.619)	3.32±0.30	0.75(0.387)
	Female	3.33±0.30		2.89±0.25		3.33±0.34	
Religion	No	3.21±0.51	0.86(0.356)	2.91±0.27	0.51(0.474)	3.31±0.30	6.61(0.011)
	Yes	3.18±0.58		2.90±0.22		3.38±0.40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	3.04±0.57	6.37(0.002)	2.89±0.23	0.28(0.759)	3.42±0.36	4.66(0.010)
	Moderate ^b	3.29±0.46	a>b,c [*]	2.91±0.25		3.28±0.30	a>b,c [*]
	Dissatisfaction ^c	3.36±0.64		2.95±0.26		3.26±0.40	
Peer relationship	Good	3.15±0.54	0.87(0.353)	2.89±6.13	0.04(0.849)	3.37±0.33	0.22(0.637)
	Moderate	3.29±0.50		2.94±0.25		3.27±0.33	
Family relationship	Good	3.15±0.55	4.60(0.033)	2.88±0.24	1.85(0.176)	3.36±0.33	0.20(0.653)
	Moderate	3.35±0.42		2.99±0.28		3.24±0.33	

M±SD:mean±standard deviation, *Duncan test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F=6.61, p=0.011), 종교를 가진 군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66, p=0.010),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가 ‘만족함’군이 ‘보통’과 ‘만족하지 않음’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0.16, p=0.024), 사회성과는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사회성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17, p=0.015)[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N=208)

Variables	Academic Stress	Sociality	Self-Directed Learning
	r(p)	r(p)	r(p)
Academic Stress	1		
Sociality	0.11(0.125)	1	
Self-Directed Learning	-0.16(0.024)	0.17(0.015)	1

4. 고찰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3.20/5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2학년 이상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Lee와 Park[6]의 학업스트레스 3.26/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도구는 달랐으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7]의 학업스트레스 3.07/5점과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Chung과 Hong[22]의 2.9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척도에서 성적이 3.5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업이 2.70/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4년제 학부 2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Lee와 Park[6]의 성적 점수인 3.81/5점보다 낮았으며, 수업 2.50/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 결과[7]와 임상실습을 하는 3학년과 4학년이 포함된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연구결과[6]를 볼 때,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대한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볼 때 간호대학생은 신입생 시기부터 중간 이상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를 초기부터 파악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업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성은 2.91/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Kwon과 Yoon의 연구[11]에서 도구는 달랐으나 사회성이 2.74/4점으로 나타났는데, 5점 만점일 때 3.43점이었다. 선행연구[11]에서는 전체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으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하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의 사회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동일한 학제, 학년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사회성의 정도를 정

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위척도에서는 대상자의 사회성 중 책임성이 3.6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성이 2.97/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대상과 도구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Lee 등[23]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사회성 중 책임성이 대학생들 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Kwon과 Yoon의 연구[11]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성 중 지도성이 가장 낮은 결과와 맥락이 유사하였다.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를 의식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통해 발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3].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은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책임성을 높게 유지시키고, 낮은 지도력을 증진하는 것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간호 수행능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3.33/5점으로 중상정도였으며, 같은 도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4]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주도성 3.66/5점과 Kwon[4]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3.51/5점으로 나타난 점수보다 낮았다. 선행연구[4, 14]의 대상자가 임상실습을 하는 3학년이었음을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간호수행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아지고[4],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하므로[14], 간호대학생 초기부터 자기주도적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간호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위척도에서는 책임수용이 3.4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전에 대한 개방성이 2.30/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Kim[14]의 연구에서 실습에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달랐으나, 도전에 대한 개방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대상자의 책임감 인식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도전에 대한 개방성 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추후 동일한 학년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가족관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다.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가족관계가 좋은 대상자의 학업스트레

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3, 6]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고,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중재가 되지 못할 때 학업 성취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3],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지속할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하며,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당국 및 교수자의 관심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하여 학업스트레스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사회성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추후 반복적 연구를 통해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은 종교와 전공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와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12]와 전공만족도[4, 12, 24]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Kim[14]의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종교를 가진 대상자의 신앙생활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반복연구를 통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파악하여 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간의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에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나, 고등학생 대상 연구[25]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할 때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줄어들고[3],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될수록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이 증가하므로[4, 26],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게 된다면 대상자들의 향후 임상실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성이 증가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Choi[27]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자기주도성이 상관성 있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

하나, 대상자 및 도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변수 간의 명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4]는 사회성이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갖는 욕구 또는 성향임을 볼 때[23], 간호대학생 시기에 사회성 함양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교내실습, 임상실습의 간호교육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28].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24],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초기부터 학습스트레스를 조절하여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회성을 키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스트레스 평균 평점 3.20/5점, 사회성 2.91/5점, 자기주도적 학습 3.33/5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를 있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만족스러울 때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학업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전략과 사회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며,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위해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석 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과 대상자 수를 확장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중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 경감 및 사회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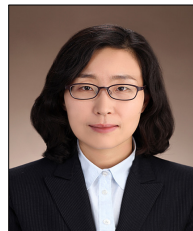
References

- [1] D. H. Ahn, G. H. Park, K. J. Baek, S. I. Chung,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Stress, and Percep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in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19, No.1 pp. 59-71, 2007.
DOI: <http://dx.doi.org/10.3946/kjme.2007.19.1.59>
- [2] S. I. Kwon,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tial Stress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Vol.10, No.1 pp. 1-29, 2009.
- [3]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 23-33, 2014.
DOI: <http://dx.doi.org/10.17547/kjsr.2014.22.1.23>
- [4]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 387-394,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87>
- [5]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 205-213, 2006.
- [6] M. H. Lee, M. S. Park,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 863-872,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863>
- [7]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2 pp. 261-268,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2.261>
- [8] M. Wander, J. Olson,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4, No.1 pp. 1-14, 2007.
- [9] E.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Fatigu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0, No.1 pp. 24-36, 2015.
- [10] Y. M. Kwon, J. H. Joo, K. M. Cho, "A Study on College Nursing Students' Volunteering Activities, Volunteering Motivation and Needs, Sociability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0, No.1 pp. 20-32, 2004.
- [11]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3 pp. 285-292, 2007.
- [12] M. Y. Kim,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3 pp. 1884-189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3.1884>
- [13] C. Riley-Doucet, “A self-directed learning tool for nurses who precept student nurses”,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Vol.24, No.2 E7-E14, 2008.
DOI: <http://dx.doi.org/10.1097/01.NND.0000300874.28610.a7>
- [14] Y. 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6, No.3 pp. 307-315, 2009.
- [15] K. W. Kim, Y. H. Cho,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4 pp. 197-218, 2011.
- [16] B. G. Bak, S. M.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No.2 pp. 563-585, 2012.
- [17] D. H. Kim, “(An)alytic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healthy sociality scale”, Sejong University Doctoral Degree Dissertation, 1992.
- [18] Y. H. Cho, “The effect of volunteerism activity on the teenagers' self-esteem and sociability”, Seonam Univers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2006.
- [19] P. J. Guglielmino, L. M. Guglielmino, H. B. Lo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implication for busines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16, No.3 pp. 303-317, 1987.
DOI: <http://dx.doi.org/10.1007/BF00148972>
- [20] R. F. West, E. L. Bentley, “Relationships Between Scores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Oddi Continuing Learning Inventory and participation i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In Huey B. Long & Associates, Self-directed learning: Consensus & conflict,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of University of Oklahoma, pp. 71-92. 1991.
- [21] K. O. Yoo, “Study on the self-direction of adult learners and its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egree Dissertation, 1997.
- [22] A. K. Chung, Y. N. Hong, “A study of the prediction of academic stress, emotional exhaustion, and career self-efficacy on learning flow and course satisfaction of college engineering students”, Proceeding of the KIEE(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Conference, Vol.10, pp. 77-80, 2012.
- [23] M. J. Lee, J. M. Lee, J. M. Lee, B. J. Choi, J. H. Chun, H. S. Sohn, “Influence of Female Undergraduates upon Socialit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8 pp. 300-309,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300>
- [24] O. H. Kim, J. S. Jeong, H. K. Jeong,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5 pp. 2809-2821, 2015.
- [25] S. H. Kim, Y. S. Kim, H. R. Yim,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pp. 339-368, 20 13.
- [26]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6 pp. 328-337,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6.328>
- [27] S. M. Choi, “Relationship of Creative Personality, Self-Direction, and Social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2006.
- [28] J. W. Lee, Y. K. Kim,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status, fatigue and regulating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6, No.1 pp. 93-108, 2005.

김 은 희(Eun-Hee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암환자 간호, 만성질환 간호